

圖 書 目 錄 法 入 門 (第一回)

白 麟

一. 目 錄 的 意 義

目録이라함은 一定한 計劃에 따라서 排列된 圖書, 地圖, 필름, 레코—드等 圖書館資料의 리스트이다. 圖書館은 過去및 現在의 學術文化에 關한 모든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 供用하므로서 學術文化의 向上 發展을 圖謀하는 機關이니만치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는 圖書館이 蒐集한 圖書나 其他 文獻의 資料를 能率의 效果的으로 利用케 하기 爲하여 어떠한 方法으로 整理 하지 않을수 없다.

圖書館이 잘 利用될 수 있는 가장 效果的이고 經濟的인 方法은 무엇인가 現代 圖書館에있어서는 무엇보다도 所藏圖書에 對한 圖書目録이 問題가 되는것이다 圖書館의 圖書가 分類되고 目録이 完全하게 만들어지므로서 閱覽者는 이 目録에 依據하여 自己가 보고싶은 책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 目録은 圖書館에 있어서 가장 細密化된 地圖와 같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圖書館이 그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나와 興否는 結局 여기 備置된 目録의 良否에 달렸다고보며 이것은 館長이나 直接職務를 擔當하는 司書의 重大한 課業이며 따라서 利用者에 있어서도 重大한 關心事가 아닐수 없다 그리고 分類나 目録事務는 圖書館의 모든 事務中에서 그 中核이되는 同時에 技術分野로서 圖書館員에있어서는 必要 不可缺의 技術이 되며 따라서 知識이라고 하겠다 圖書館員은 絶對로 書庫를 지킴으로써 滿足할 수 있는 把守人은 아니다 어느程度의 目録의 知識이나 技術이 없이 圖書館을 運營할 수 있다고 하는 者가 있으면 그 얼마나 可憐한 思考方式일까 圖書館이 그 利用價値를 높이기 爲하여 좋은 目録을 備置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學者인 Hitchler 는 그의 著書 Cataloging for small libraries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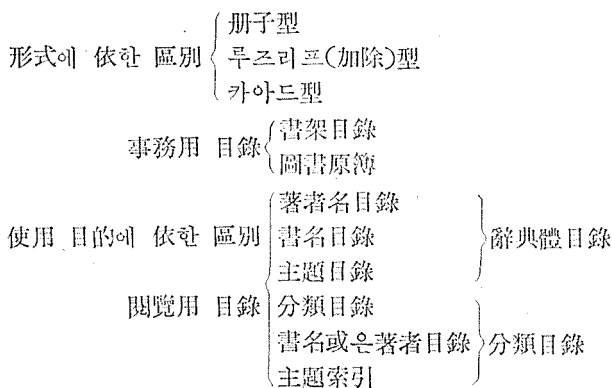
“小圖書館에 있어서 必要 不可缺한 三要素는 첫째로서 圖書館을 잘 理解할 수 있는 管理者(An interested & Capable Governing Board) 둘째로는 第一級の 圖書館長(First class librarian) 셋째로 第一級の 目錄者(First class cataloger)이다 Hitcher의 指摘한 바와 같이 目錄者의 地位나 責任은 實로 重要하다. 圖書館이 아무리 훌륭한 資料를 많이 收藏하고 있어도 이것을 充分히 紹介 할수 있는 手段이 없고보면 그 資料도 價値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圖書館이 蒐集한 資料를 損色없이 利用者에 提供하기 爲한 手段으로서의 目錄이니만치 그 目錄은 가장 便利하고 正確해야 한다. 從來의 圖書館은 圖書가 中心體였고 따라서 目錄規則도 大部分이 圖書整備를 爲主로한 規則이었다. 그래서 圖書以外의 資料整理에 있어서는 圖書目錄法을 應用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現代 圖書館은 圖書以外의 資料도 活潑히 蒐集 整理하여 利用시키고 있으며 또한 A.L.A.나 L.C.規程에 圖書以外의 資料를 整理하는데 必要한 規定을 充分히 插入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主로 圖書目錄法에 對한 것만을 說明하겠다.

二. 目錄의 種類

目錄의 種類는 論者에 따라 다르나 로마의 Vatican 圖書館의 新 目錄規則(Normeper il catalogs degli stampati)에 表示된

1. 圖書原簿. 2. 書架目錄. 3. 分類目錄.
4. 著者目錄. 5. 書名目錄. 6. 主題目錄.
7. 辭典體目錄을 가한 7種으로 區別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본다.

以下 各種 目錄에 對하여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겠다.



1. 目錄의 形態別

大體로 目錄의 形態로서는 다음과 같이 三種으로 區別한다.

1. 冊子型. 2. 루즈리프型. 3. 카아드型等 이제 이들 各型 目錄의 長短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가), 冊子型

이 形式은 한장의 紙面에 여러冊을 記入 할수 있고 또한 同時에 여러部를 印刷 分配하여 各已 다른 場所에서 使用할수 있다는것이 그의 特點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印刷나 編輯에 要하는 時間과 經費는 적은것이 아니며 그 보다는 나날이 增加하는 圖書에 對한 目錄의 追加와 誤記等의 校訂은 거의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이 冊子型 目錄은 書籍商의 出版目錄이나 或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外에는 거의 카아드型 目錄으로 하고있다.

(나), 루즈리프型

이 形式은 所謂 카아드型과 冊子型의 長點을 取하여 考案된 形式이라고는 하지만 兩者의 短點도 모두 가지고있다 한장의 紙面에 여러冊을 記入할수 있고 또한 加除도 어느程度 自在하다 그러나 이것이 操作上의 手苦와 落帙等 不便한 點이 많다.

(다), 카아드型

이 目錄은 個別式 目錄으로 每冊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만들어진 記入(카아드)이 一定한 組織原理에 따라 排列된 것으로서 圖書館의 閱覽目錄으로서는 가장 便利한 것이다 이 카아드型 目錄의 特色은 새로 追加되는 目錄이나 除籍後에 따르는 記入(카아드)의 除去는 언제나 必要한 그때 그때에 自由로 加除할수 있으며 全體의 目錄이 恒常 하나의 完全한 組織體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 圖書館에 있어서 目錄이라고하면 무엇보다도 이 카아드型 目錄을 聯想케 하는 程度이다.

2. 事務用目錄

事務用目錄이라함은 事務上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 目錄室이나 或은 其他 事務에 參考할것을 目的으로 만든것이다 위의 圖解에서 보는바와 같이 事務用 目錄에는 圖書原簿와 書架目錄의 두 種類가 있는데 圖書原簿는 目錄이라기보다 帳簿라고 하겠다 이것은 會計法上 圖書도 하나의 財産이라는 觀念에서 생겨게 된것이며 日本의 獨特한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의 影響을 받아 大部分의 圖書館이 이 圖書原簿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圖書原簿는 實際 圖書館 活動面에서는 아무런 役割도 擔當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財産目錄 으로서 그 必要性을 認定할수 있을까 그러므로 圖書館 學者中에는 이것의 不用論을 陳드는 분도 많다 圖書原簿에 對한 說明은 略하고 以下 書架目錄에 對하여 說明 하겠다.

3. 書架目錄

書架目錄(Shelf list) (函架簿라고도 한다)은 事務用目錄의 一種으로서 圖書가 書架에 排列整理된 것과 같이 編成된 目錄으로 그 形式에는 루즈리프式과 카아드式的 두 種類가 있다 카아드式인 때는 圖書記號가 著者記號이며 記入(카아드形式)도 基本記入에서의 同一하다 다만 事務上 必要한 事項으로서 登錄番號 受入 日字 價格等 더 添加 記載하여 이것을 請求番號順대로 排列한다 그리고 루즈리프式인 때는 이것을 函架簿라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使用되고 있지만 이러한 函架簿를 使用하는 圖書館은 圖書記號가 著者記號가 아니고 受入順에 따라 定한 番號이다 그러므로 圖書記號를 受入順에 따라 定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이 函架簿에 依하여 決定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圖書記號가 受入順番號에서 著者番號로 바뀔에 따라 漸次 루즈리프式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카아드式的 便利를 以上더 말할 必要는 없지만 特히 將來의 發展을 考慮하여 基本記入(카아드)과 同一한 形式의 事務事項만을 더 附加 記載하여 書架目錄으로 使用하면 一石 二鳥의 得이 된다.

4. 閱覽用 目錄

閱覽用 目錄(Public catalog)은 圖書館 資料의 利用을 目的으로한 閱覽者를 爲한 目錄이다 閱覽用 目錄은 圖書館에 따라 各各 다르나 大體로 書名目錄과 分類目錄을 作成하는 곳과 辭典體 目錄에 對한 編成 技術이 不足하므로 書名目錄, 著者目錄, 主題目錄을 別個的으로 만들고 있는 圖書館도 있다. 그러나 學校圖書館이나 小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經費와 技術上 辭典體目錄을 만들기는 困難한 것이므로 우선 主題目錄과 著者目錄을 備置하여도 어느程度 利用者의 要求에 應할수 있지만 大圖書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辭典體 目錄을 備置하고 있어야 한다.

(가), 著者目錄(Author catalog)

著者目錄이라함은 各記入의 標目에 著者名을 採擇하여 이것의 알파벳順이나 或은 가, 나, 다順으로 排列編成한 單一目錄으로서 그 圖書의 著作者名을 아는 閱覽者가 著者名의 字音順에 따라 檢索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目錄이다 그러나 現代目錄法의 方向은 閱覽用 目錄으로서 이러한 單一目錄을 編成하는데 두지 않고 著者 書名目錄, 分類目錄, 或은 辭典體目錄等 所謂 混合目錄을 編成하는 傾向이 濃厚해졌다 그러므로 目錄規則上 著者名을 基本記入으로하고 他是 副出記入으로하여 이것들이 一連의 알파벳順이나 가, 나, 다順에 따라 排列編成한 目錄을 備置하고 있다.

(나), 書名 目錄

書名目錄(Title catalog)은 書名을 標目으로 하여 이것의 알파벳順이나 가, 나, 다順에 따라 排列編成된 目錄이다. 그러므로 이 目錄은 書名만을 알던 쉽게 검색할수있다 從來에 있어서는 이것이 圖書館에 있어서 主要目錄이었으나 目錄規則에서 標目選定の 原則이 書名에서부터 著者名으로 轉化되고 또한 辭典體目錄이 登場함에 따라 하나의 副記入으로서만 그 存在를 認定하게 되었다 (다), 主題目錄

主題目錄(Subject catalog)은 圖書의 內容 卽 主題를 表示하는 名辭를 標目으로 하여 이것의 알파벳順에 따라 排列한 目錄 組織으므로 書名이나 著者名을 모르고도 그 圖書의 主題 卽 件名의 字音順에 따라 單的으로 檢索할수있게 編成된 目錄이다 이 主題目錄은 本來 辭典體目錄의 一部로서 發展되어 왔으나 財政的으로 薄弱한 小圖書館에서는 辭典體目錄을 備置할 수 없으므로 單獨目錄으로서 이 主題目錄을 作成하고있다.

이 目錄의 特色은 特定한 問題에 關한 研究나 調査에 있어서 그에 必要한 文獻 및 參考資料를 얻고자 할때 그 問題의 主題로서 直接 目錄의 資料를 찾을 수있다 그러므로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에 있어서는 가장 役割이 큰 目錄이나 우리는 아직 이 目錄의 作成에 基礎가 되는 主題名標目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 主題目錄에 對하여는 紙面을 좀더 厚히 열어서 他日 詳細히 說明키로 하겠다.

(라), 辭典體目錄

辭典體目錄(Dictionary catalog)은 著者 書名, 主題의 三者를 併合하여 編成한 目錄이다 이 目錄은 百科辭典과 같이 著者, 書名 主題의 어느것으로든지 定한 標目에 따라 自由로 必要한 文獻을 檢索할수있게 組織되어 있다 이것은 現代圖書館의 理念에 合致되는 目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辭典體目錄을 編成하는데 있어 카이드 排列에는 多少專門의 技術과 知識이 必要하다.

例를 들면 標目의 著者名과 主題名이 同一한데 書名과 主題名이 同一한데 著者名과 書名이 同一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중 어느하나를 除去해야된다 그리고 各記入의 排列에 있어 定한 規則이 多少複雜하다 그러므로 이 目錄을 編成하는데 있어서는 排列規則을 잘 理解하고 어느程度 習達한 後에 着手하는 것이 좋다.

(마), 分類目錄

分類目錄(Classified catalog)은 그 圖書館에서 使用하는 分類表에 依하여 圖書 및 其他資料를 分類體系대로 類集 編目하여 하나의 知識의 體系를 形成하는 目的으로서 特定 學問知識의 分野에 關한 文獻을 縱覽케 하고 따라서 그 分野

의 文獻을 體系의으로 比較檢討케 하기 爲하여 組織된 目錄이다 이 目錄은 專門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과 같은 高等한 參考圖書館에 있어서는 學問研究가 그의 重要使命이므로 이 目錄이 必要하지만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에 있어서는 그리 重要的 目錄은 아니다 特히 開架式 閱覽制度를 取하는 學校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은 이 目錄은 必要치 않다 그리고 現代圖書館에 있어서 分類가 細密化되고 또한 圖書排列이 分類目錄의 體系와 大體로 同一하므로 이 目錄이 書架目錄과 形式上 어느程度 共通된 點이었다 그러나 各己 그 目的과 用途가 다르니 兩目錄이 同一한 것이라곤 할수 없다 왜냐하면 完全한 分類目錄으로서의 形式을 갖추려면 거기에는 副出, 分出에 必要하고 또한 分類表의 索引을 取하여 主題索引을 만드려 주어야 한다.

三. 目錄規則(Cataloging Rules)

目錄規則(Cataloging Rules), 編目規程이라고도 한다 目錄의 作成方法을 條項에 따라 規定지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目錄規則은 基本記入의 標目的 選定 및 기술의 範圍와 副出記入 參照等에 記載되는 事項 및 記載方法과 따라서 目錄을 編成하는 때 必要한 排列方法等을 規定한 것이다 그러므로 目錄者는 目錄規則에 指示하는 範圍內에서 記入을 만들고 目錄을 編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大部分의 圖書館은 西洋書 目錄作成에 있어서 目錄의 選定은 A, L, 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에 依하고 記述에는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또한 配列은 A, L, A, Rules for Filing Catalog Cards, 14 42판을 각각 適用하고 있다 바티칸 圖書館의 目錄規則이 가장 잘 되어있는 規則이라고 評을 받고 있지만 西洋서 目錄을 爲한 規則으로서는 A, L, A, Rule 과 L, C Rules에 比肩할 目錄規則은 아직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면 西洋書 目錄規則에 對하여는 再論하기로 하고 東洋書 目錄을 爲한 規則을 개관 کن대

첫째 中國에서는 標準目錄規則이 아직 制定되지 못하고 日本도 所謂 N. C. R 이라하여 標準目錄規則으로서 1952년 판을 내놓고 있지만 이도 完成의 域에 達하려면 철저한 비판을 받아 全적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統一된 目錄規則은 編纂되어 있지 않다 다만 朴奉石先生編인 朝鮮 東書 編目規則이 過去 朝鮮圖書館協會의 認定을 받아 4281년에 刊行되었고 그밖에 高在利氏 編 圖書目錄法 朴熙永氏 編 東書目錄規定草案等이 發表되고 있다

(筆者 서울 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長)